김호중. 사진|스타투데이DB경찰이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 김호중이 방문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했다.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전 1시부터 5시 20분까지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주점에 수사관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했다.경찰은 폐쇄회로(CC)TV 영상 등 김호중의 사고 전 음주 정황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.경찰은 해당 술자리 동석사와 주점 직원 등으로부터 ‘김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’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. 해당 유흥업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유흥업소로 알려졌다.김호중 측은 강력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.국과수는 전날 경찰에 ‘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(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)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’는 소변 감정 결과를 전달했다.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(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, 사고후 미조치 등)를 받는다. 사고 3시간여 뒤 김호중 매니저는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으나, 조사 결과 김호중이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.김호중은 사고 직후 귀가하는 대신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,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털어놨다. 이와 관련 소속사 대표는 자신이 지시한 일이며 김호중의 음주운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.경찰은 사고 뒤 매니저의 허위 자백을 비롯한 ‘운전자 바꿔치기’와 관련해 김호중과 소속사 간 긴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. 경찰은 지난 16일 김호중의 집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집,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. 김호중 측은 조남관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다.김호중은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‘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’ 공연을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.